"장롱 속 달러 모아 금융위기 극복을"

박희태 대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

당·정·청, 외국 언론 악성 보도 해명 등 총력 대처

정부와 여당이 폭등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이 달러 사재기에 경고를 하고 나섰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기업과 국민이 갖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 내놔 은행의 달러 보유고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9일 "기업과 국민이 갖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 내놔 은행의 달러 보유고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외화 유동성 위기 우려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달러 사재기를 안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금고와 장롱에 있는 달러를 내놓는 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달러 예금을 많이 해 은행의 달러 보유고가 올라가면 대외 신용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이 IMF 체제 극복의 심리적인 원동력이 됐었다"며 "지금의 외환위기는 위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달러가 자꾸 귀해지니까 달러를 사재기한다"면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고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 사람도 있는 것 같으나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욕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회장단·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도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이라는 제하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8일자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달러를 빌려서 원화로 대출했고 원화가 하락하자 위기를 맞게 됐다며 작년 말 기준 한국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금은 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계 은행에 지급불능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는 다우존스의 보도는 오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정부는 "피치가 해당 기사와 관련 다우존스의 한국어 번역이 잘못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7일 아시아에서 금융위기에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을 꼽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강력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취임 100일 맞은 與野 대표 /

소통 틀 구축…'홀로서기' 역부족

한나라 박희태 대표

'화합과 소통'이라는 좌표를 설정한 한나라당 박희태호(號)가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대표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쟁중단을 선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표의 지난 100일은 '망망대해에서의 항해'라고도 할 수 있다.

취임 직후 박 대표는 우선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복당을 전격 결정, 친이(친이명박), 친박 양 계파의 케케묵은 감정싸움을 일단 진정시킨 것.

특히 박 대표는 당내 소통,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와의 소통 등 '3통(通)'에 심혈을 기울였다.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대표 특보단을 구성함으로써 당내 소통창구를 찾아가고 있고,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탐방에 매진, 국민여론 듣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도 정례화했다.

하지만 박 대표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박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틀을 잡아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취임 100일을 앞두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정쟁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당 대표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당부터 정쟁중단을 선언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금융위기 극복에 정치권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땀흘리는 모습이 처음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한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재창당 초석…'野性 부족' 지적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

'견제야당과 대안야당의 조화를 통한 수권야당 건설'을 기치로 내건 정세균 대표 체제가 13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정 대표 체제는 안으로는 구여권 분열 구도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을 이루면서 밖으로는 소수야당의 한계를 딛고 거대여당을 견제, 정국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발했다.

먼저 정 대표는 특유의 안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내세워 과도체제였던 당을 정상궤도로 빠르게 진입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집토끼', 즉 전통적 지지층 복원에 공들였다. 지난달에는 4년6개월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를 열며 '뉴민주당 비전위', '2010년 인재양성위'를 발족, 집권을 위한 뉴민주당 계획을 가동하며 재창당의 초석을 마련했다.

정 대표는 내부 안정을 토대로 새로운 야당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실험을 본격화했다.

정 대표가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행보를 디뎠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가 '9월 경제위기설'이 불거졌을 때 "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일이나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경제·민생 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국정 동반자'의 반열에 섰던 일도 그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그는 "뭘 더 협력한다는 말인가"(최문순), "이 대통령의 들러리만 서 준 기형적 회동"(이종걸) 등 당내 일각의 역풍에도 부딪혔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된 셈이다.

정 대표 측 핵심인사는 "양대 수레바퀴인 '강력한 야당'과 '능력 있는 야당'의 균형을 맞춰가며 경제·외교·안보 어젠다 설정에 주력, 착실히 득점할 것"이라며 "당이 잘돼야 '정치인 정세균'의 미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단공 임원 협박성 폭언…지경위 '국감 중단'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장. 피감기관 한 임원이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질의에 불만을 갖고 최 의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하면서 국감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 13일 라디오 연설 왜

국민 직접 설득…금융위기 확대 차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직접 대국민 정책홍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 대외 악재와 함께 심리적 요인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소방수'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냈듯이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루즈벨트 '노변담화' 벤치마킹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계획했던 라디오 연설을 앞당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최근의 경제상황이 불안심리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금융쇼크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만 현재의 위기는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와는 다르다"면서 "이런 때일 수록 국민도 정부를 믿고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재향군인회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언급,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고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도 좀 있는 것 같으나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이 욕심을 가져선 안된다"며 '달러 사재기'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국민과 정담 나누듯 '정책 홍보'

이와 함께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록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 추진에는 최근의 경제상황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취임 초 국정을 마비시켰던 '쇠고기파동'에 이어 언론장악, 신(新) 공안정국 조성 종합부동세 완화 등 각종 논란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

이는 또 지난달 9일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던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와 관련, 새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상당부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청와대의 자평과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